

**증권거래위원회가 한국계 미국인을 상대로 한 8천만불 폰지 피라미드 사기
조작자들을 고소하다.**

워싱턴, D.C., 2009년 6월 9일 -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한국계 미국인 투자자를 상대로 외환 거래를 통해 엄청난 고수익을 준다는 거짓 약속으로 8천만불의 폰지 피라미드 사기를 벌인 캘리포니아의 두 남성과 두 회사를 고소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캘리포니아주의 댄빌의 피터 C. 손과 캘리포니아 로스 알토스의 진 K. 정이 그들이 주장한 것처럼 투자 자금이 외환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고, 대신에 그 자금을 폰지 피라미드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투자자들에게 현금 “수익”으로 지불해 온 그들의 투자 사기에, 미국, 한국과 대만에 있는 약 500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이는 혐의를 제기하였다. 그들은 또한 투자자들의 돈을, 억만불에 달하는 손의 집을 위한 모기지 지불을 포함한 자신들의 개인적 사용으로 남용하였다. 증권거래위원회는 피고인의 자산을 동결하는 비상법원명령을 요구하고 있다.

“손과 정은 그들 자신과 그들의 회사들이 외환 거래 산업에서 상당히 성공한 것처럼 묘사한 반면, 실제로 그들이 주장한 엄청난 외환 거래 이익은 존재하지도 않았다.”라고 증권거래위원회의 샌프란시스코 지부 사무실의 디렉터인 마크 웨이글씨는 말했다. “그들은 한국어 신문들에 광고들을 냈고, 끈끈하게 얽힌 지역사회내의 신뢰를 악용, 전형적인 친밀감 사기 방식으로 판매요원들을 써서 한국계 미국인들을 겨냥하였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연방지방법원에 접수된 증권거래위원회의 고소에 의하면, 손과 정은 캘리포니아주의 플래산톤과 뉴욕시에 사무실을 보유한 SNC 자산 관리회사 (SNCA)와 SNC 투자회사(SNCI)를 통해 그들의 사기를 운영하였다. 손과 정은 투자자들에게 외환거래를 통해 36 퍼센트에 이르는 대단한 연수익을 약속했으며, 투자자들에게 SNCA 가 2003 년 이후 매년 그러한 거래로 50 퍼센트 수익을 창출했다고 말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손과 정이 투자자들에게 거짓 이익을 보여주는 매월계좌명세서를 제공함으로써, SNCA 의 가상의 외환거래수익들을 위조했다고 주장하였다. 손과 정은 그들의 폰지 사기가 붕괴될 무렵, SNCA 와 SNCI 의 은행계좌를 모두 빼내어 그들이 해외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투자자금을 송금하였다. 손의 모기지를 지불한 것 외에도,

투자자금은 자본금 주입혼합액을 SNCI 에 제공하는데쓰이고, 또 그 회사를 위해 일하지도 않았던 손의 아내의 임금으로 지불되었다.

투자자들을 위한 다른 긴급구제 중, 증권거래위원회는 피고인들의 연방증권법사기방지 조항의 장래 위반들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산을 동결하고 해외 자산을 미국으로 송환하도록 촉구하며; 부정이익을 뱉어내고 재정 벌금을 지불할 것을 명령하는 법원명령을 구하고 있다.

어제날짜로, 손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 소재한 연방법원에 연방 범죄 혐의로 출두했다. 개별적으로 오늘은,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가 손, 정, SNCA 와 SNCI 를 상대로 민사법 사기 혐의를 발표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연방 수사국, 북가주 지역 연방검찰청, 상품 선물 거래 위원회와 미국 선물 협회의 도움을 승인, 감사드린다.

###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Marc J. Fagel
Regional Director, SEC's San Francisco Regional Office
(415) 705-2449

Michael S. Dicke
Associate Regional Director-Enforcement, SEC's San Francisco Regional Office
(415) 705-2458